최승주

https://youtu.be/pP-Q5z4g2io





# Contents

zk-SNAR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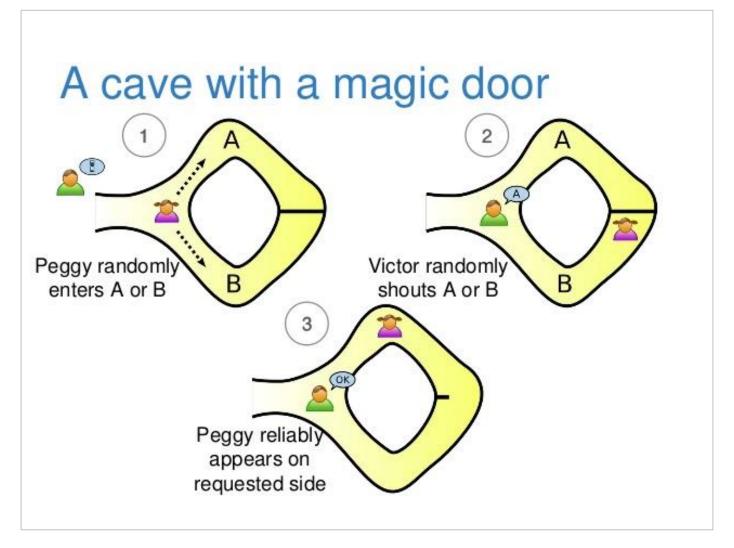
기타 추가 설명



- Zero Proof Knowledge(영지식 증명)
-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정보는 보여주지 않으면서

본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 방식





출처: https://www.slideshare.net/IgnatKorchagin/enforcing-web-security-and-privacy-with-zeroknowledge-protocols



• 스도쿠 예시

5	3			7				
6			1	9	5			
	9	8					6	
8				6				3
8 4 7			8		3			1 6
7				2				6
	6					2	8	
			4	1	9			5 9
				8			7	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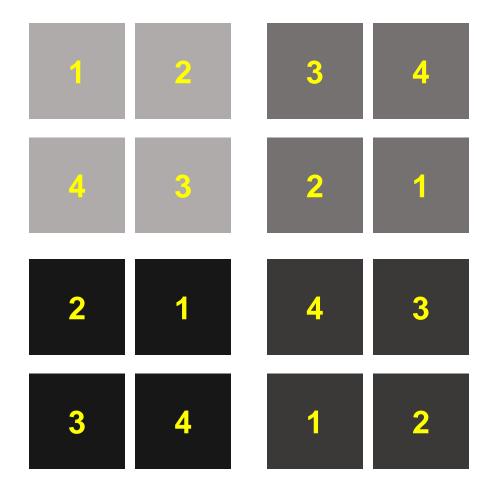
- 4 x 4 버전 스도쿠
- 참여자: Prover, Verifier
- Prover: 스도쿠 답을 공개하지 않고, 해당 문제가 풀렸다는 것을 증명
- Verifer: Prover가 스도쿠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함



- 1. 해답 섞기
- 2. 섞는 패턴과 섞어서 나온 스도쿠 가리기
- 3. Verifer가 원하는 해답 공개
- 4. 1~3 반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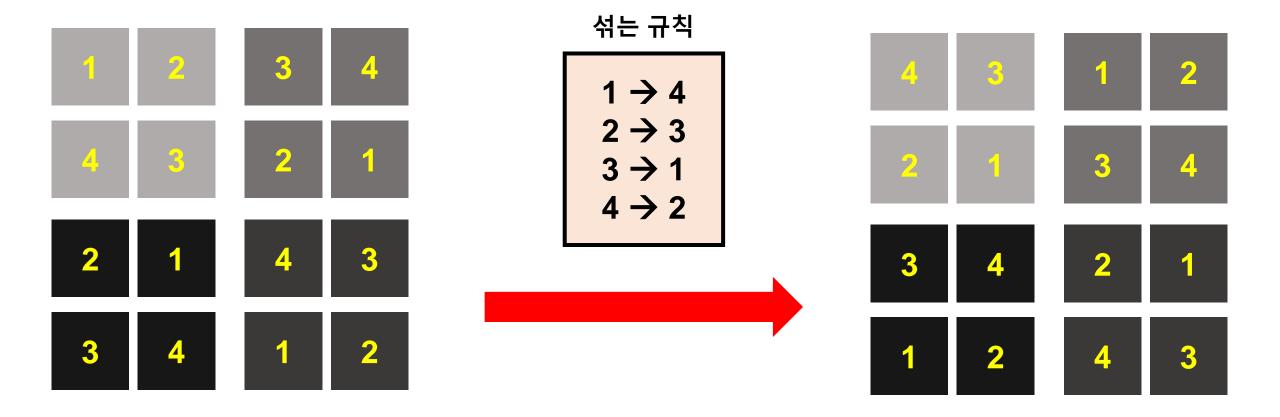


0. 스도쿠 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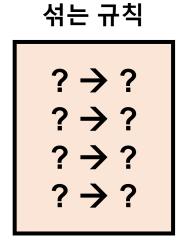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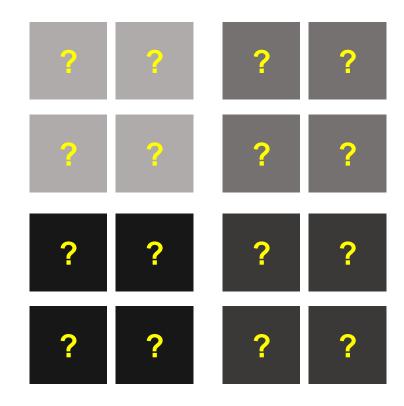


#### 1. 스도쿠 섞기



#### 2. 섞는 규칙과 섞어서 나온 스도쿠 가리기





#### 3. Verifer가 원하는 해답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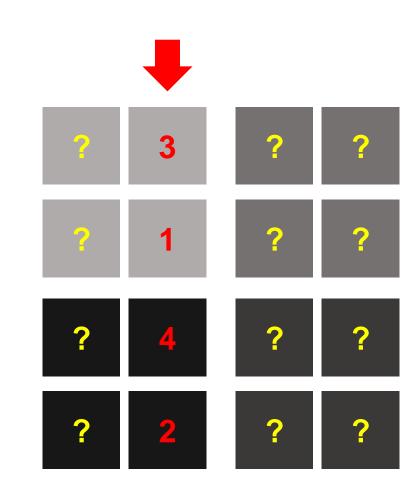
- 특정 열을 공개
- 특정 행을 공개
- 특정 구역을 공개
- 임의의 한 지점을 공개



#### 3. Verifer가 원하는 해답 공개



? → ? ? → ? ? → ? ? → ?



- 한번 물어봤으면 또 다른 규칙으로 섞어서 공개
- 만약 다른 방식으로 섞지 않고 똑같은 것을 계속 쓰면 해답을 유추할 위험이 있음

- Verifier는 계속해서 질문을 더 한다.
- 우연히 해답을 한번 맞은 것일 수도 있기에 여러 번 계속해서 질문해서 Prover가 해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한다.



• 특정 문제에 대해 해답을 알고 있다는(true) 것을 보이면 됨

- 스도쿠:
- 섞인 스도쿠(공개)
- 질문(해답을 아는지)
- 질문에 대한 답변 제시(비공개 해답으로 답을 만들어 해줌)



• 공개된 값 : x

• 문제 : C

• 해답 : w (witness – 비밀 정보)

- C(x, w) == true 가 나오게 만들면 증명 성공
- 암호 학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답을 갖는 것: Hash

• 공개되어 있는 값 x는 w의 hash 값

```
Function C(x,w){
  return (sha256(w) == x);
}
```

#### zk-SNARK 3가지 알고리즘

- 1. Generator(C circuit, lambda)  $\rightarrow$  pk(proof key), vk(verifying key)
- 2. Prover(pk, x public input, W secret input)  $\rightarrow$  proof
- 3. Verifier(vk, x, proof)  $\rightarrow$  true or false



#### zk-SNARK 3가지 알고리즘

1. Generator(C circuit, lambda)

- → 증명 요구자(검증자)
- 2. Prover(pk, x public input, W secret input) → 증명 하려는 사람
- 3. Verifier(vk, x, proof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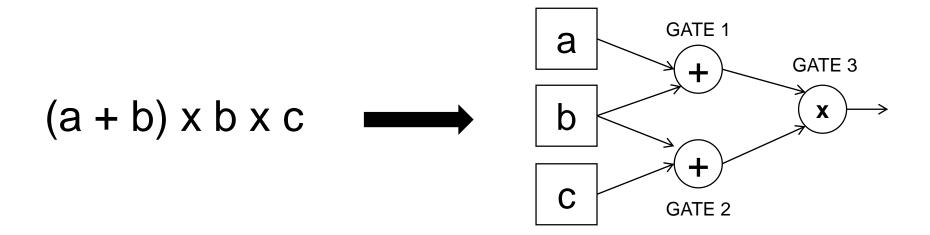
→ 증명 요구자(검증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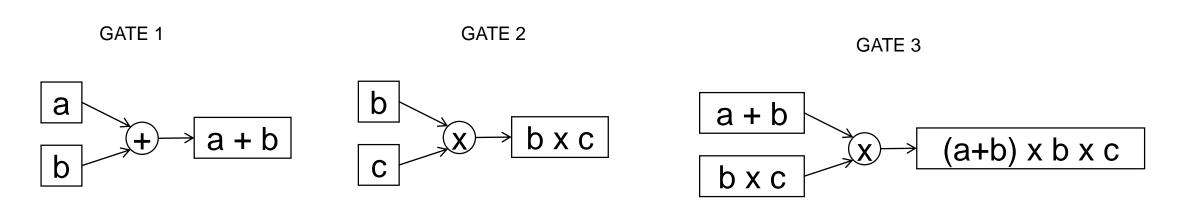
- 1. Generator(C circuit, lambda)
- Input 값: 문제와 랜덤 값인 lambda를 받음 (문제는 공개, lambda는 절대 비공개)
- Output 값: proof 키와 verifying 키 생성 (키는 전부 **공개**)

```
C의 예시
Function C(x,w){
  return (sha256(w) == x);
}
```

- Generator(C circuit, lambda)
- C
  - 컴퓨팅 **→ 연산 회로 →** R1CS **→** QAP
  - 연산 회로: 주어진 수식을 사칙 연산 단위로 풀어 쓴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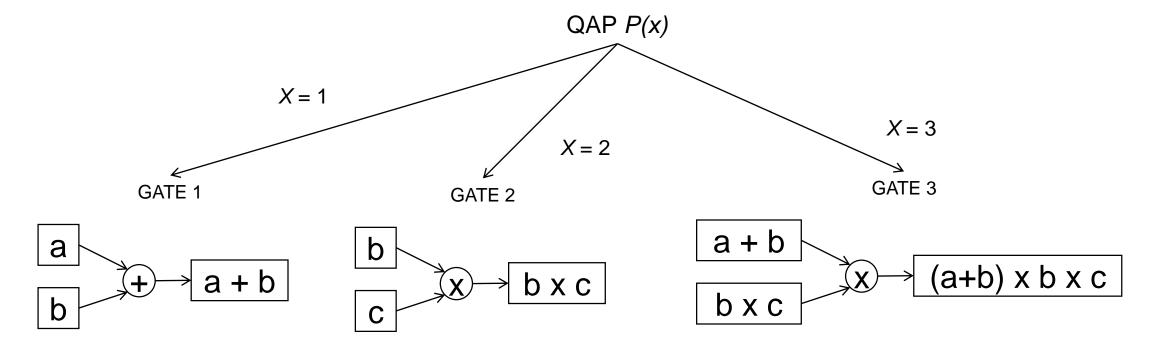
- Generator(C circuit, lambda)
- C
  - 컴퓨팅 → 연산 회로 → R1CS → QAP 각 게이트에 대해 주어진 입출력 값이 유효한지 확인 각각의 게이트 별 제약사항의 유효성을 일일이 검사해야함



- C
  - 컴퓨팅 → 연산 회로 → R1CS → **QAP**
  -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QAP(Quadratic Arithmetic Program) 도입
  - 임의의 게이트 값을 변수에 대입 → 해당 게이트 값에 해당하는 게이트의 R1CS 형태가 나오는 다항식으로 표현



- C
  - 컴퓨팅 → 연산 회로 → R1CS → QAP
  - 임의의 게이트 값을 변수에 대입 → 해당 게이트 값에 해당하는 게이트의 R1CS 형태가 나오는 다항식으로 표현





- C
  - 컴퓨팅 → 연산 회로 → R1CS → QAP
  - 임의의 게이트 값을 변수에 대입 → 해당 게이트 값에 해당하는 게이트의 R1CS 형태가 나오는 다항식으로 표현

• 목표 다항식(T) – P가 T로 나누어 떨어짐을 보이면 유효성 검증 가능

$$T(x) = (x - 1)(x - 2)(x - 3)$$



#### Generator

```
template<typename ppzksnark_ppT>
r1cs_ppzksnark_keypair<ppzksnark_ppT> generate_keypair()
{
typedef Fr<ppzksnark_ppT> FieldT;
protoboard<FieldT> pb;
payment_in_out_gadget<FieldT> g(pb);
g.generate_payment_in_out_constraints();
const r1cs_constraint_system<FieldT> constraint_system = pb.get_constraint_system();
cout << "Number of R1CS constraints: " << constraint_system.num_constraints() << endl;
return r1cs_ppzksnark_generator<ppzksnark_ppT>(constraint_system);
}
```

- 2. P(pk, x, w)
- Input 값: pk(증명 키), x(공개), w(비공개)
- Output 값: prf (증명자가 w를 안다는 것을 증명한 값 proof)

prf = P(pk, x, w)

- 3. V(vk, x, prf)
- Input 값: vk(검증 키), x(공개), prf(공개)
- Output 값: True 또는 False

boolean = V(vk, x, prf)



- 1. Generator(C circuit, lambda)  $\rightarrow$  pk(proof key), vk(verifying key)
- 2. Prover(pk, x public input, W secret input)  $\rightarrow$  proof
- 3. Verifier(vk, x, proof)  $\rightarrow$  true or false

- Lambda: 그리스 언어로 숫자 30
  -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에 사용
  - 선형대수학에서 고윳값 변화를 취해도 변하지 않은 값



- 1. Generator(C circuit, lambda)  $\rightarrow$  pk(proof key), vk(verifying key)
- 2. Prover(pk, x public input, W secret input)  $\rightarrow$  proof
- 3. Verifier(vk, x, proof)  $\rightarrow$  true or false

- Lambda를 알아버리면 가짜 증명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.
- Lambda의 관리가 중요(한번 쓰고 제거)



1. Generator(C circuit, lambda)

- → 증명 요구자(검증자)/신뢰 기관
- 2. Prover(pk, x public input, w secret input) → 증명 하려는 사람
- 3. Verifier(vk, x, proof)

→ 증명 요구자(검증자)

#### **ERC20 Token**

- 코인
  -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는 숫자
- 토큰
  -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존재하는 화폐



- 토큰으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함수들 구현을 요청
  - 사람들이 모여서 기능 구현
  - 요청 번호 20번 ERC20
  - 토큰을 보내고 받는 등의 매우 기본적인 함수들 구현

• 제일 잘 쓰이는 토큰: ERC20, ERC721



#### **ERC20 Token**

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아래와 같은 함수로 관리 mapping (address => uint256) balances;

• uint256: address 주소가 갖고 있는 토큰의 양 기록

 $A \rightarrow 10$  Token

 $B \rightarrow 15$  Token...



#### **ERC20 Token with zk-SNARK**

- 토큰을 얼마를 보내고,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감춘다.
  -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은 감추지는 않음

mapping (address => uint256) balances;



mapping (address => bytes32) balanceHashes; (해시 값들은 공개)



#### **ERC20 Token with zk-SNARK**

- 토큰을 전송할 때 확인하는 요소
  - 보내려고 하는 양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양 이하인가
  - 본인 잔고보다 초과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

balances[fromAddress] >= value



#### **ERC20 Token with zk-SNARK**

보내는 쪽

- 비밀정보(w): 갖고 있던 토큰의 양, 보내는 양
- 공개정보(x): 갖고 있던 토큰의 양의 해시
  - 보내는 양의 해시
  - 보내고 난 뒤 토큰의 양 해시 값



#### **ERC20 Token with zk-SNARK**

받는는 쪽

- 비밀정보(w): 갖고 있던 토큰의 양, 받는 양
- 공개정보(x): 갖고 있던 토큰의 양의 해시
  - 받는 양의 해시
  - 받고 난 뒤 토큰의 양 해시 값



#### **ERC20 Token with zk-SNARK**

보내는 쪽

```
function senderFunction(x, w) {
    return (
        w.senderBalanceBefore > w.value &&
        sha256(w.value) == x.hashValue &&
        sha256(w.senderBalanceBefore) == x.hashSenderBalanceBefore &&
        sha256(w.senderBalanceBefore - w.value) == x.hashSenderBalanceAfter
    )
}
```



#### **ERC20 Token with zk-SNARK**

받는 쪽

```
function receiverFunction(x, w) {
    return (
        sha256(w.value) == x.hashValue &&
        sha256(w.receiverBalanceBefore) == x.hashReceiverBalanceBefore &&
        sha256(w.receiverBalanceBefore + w.value) == x.hashReceiverBalanceAfter
    )
}
```

# Q&A

